

'완도 무기수 김신혜' 재판 변호인 못 구해 또 공전 위기

광주·전남 해법기는 재심사건

올 한 해 광주·전남 법원에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재심 재판이 잇따라 열렸다.

수년 또는 수십년 만에 확정된 유죄 판결 결과가 뒤집힐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판결이 미뤄져 해를 넘기게 됐다.

◇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사건=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여·46)씨의 재심 재판은 지난 5월 1년 6개월만에 재개됐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김씨의 재판은 지난 2015년 11월 재심 개시 결정 이후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이 이어지면서 공전돼 왔다.

지난 5월 일명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다시 김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면서 김씨의 재심에 속도가 붙었다. 이후 6차례 재판이 열렸지만 이후 김씨가 다시 박 변호사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법률대리인을 말을 변호사가 없어 현재 국선변호인을 물색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결심 공판후 재심개시 차일피일

'영조호 납북 어부 사건' 간접 혐의 놓고 검찰과 팽팽한 대치

'제주 4·3' '거제도 간첩사건'도 새해 광주지법서 재심재판

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어 재판이 다시 공전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김씨는 2000년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23년간 복역중인 김씨는 "동생이 죽은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으며 무죄를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상 없이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조사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들어 강압 수사라고 판단해 청구를 인용했고, 재심이 시작됐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순천지역을 떠돌아다녔던 일명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개시결정을 위한 결심 공판이 지난 8월 끝났다. 이후 140여일 동안 재심개시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정 휴정기(12월 25일~2024년 1월 7일)가 지난 후 재심개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주민이 사망한 사건이다.

A·B씨 부녀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건네 C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했고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A씨 부녀는 11년 만인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4차례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 8월 8일 심문이 종결됐다.

A씨 부녀의 재심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에서 자백이 허위임을 알려주는 영상이 있는 만큼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다만 심리가 길어진 만큼 재심개시결정과 형집행정지까지 함께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납북어부, 제주 4·3 사건=2024년에도 광주지법에서는 재심사건 판결이 이어질 예정이다. 1968년 5월 여선 '영조호'에 탑승해 조업하다 납북돼 5개월 만에 인천항으로 귀환한 납북어부 D씨의 재심 사건도 열린다.

D씨는 납북어부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6년뒤 다시 간접 혐의 등으로 다시 수사기관에 붙잡혀 징역 3년 6개월을 살았다. 6·25 때 실종된 가족을 걱정하는 지인에게 D씨 아

버지가 "아들이 납북 당시 북한에서 잘살고 있는 것을 봤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간첩죄의 빌미가 돼 체포됐다는 것이 D씨의 주장이다.

D씨는 고문·강요에 의한 수사내용을 기반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D씨는 당시 간접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해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상황이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D씨의 재판은 내년 2월 29일 열린다.

제주 4·3 관련자의 재심재판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지난해 10월 제주지법에서 재심이 청구돼 재심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이 재심 사건에 대한 관할 법원이 제주가 아니라 실제 재판을 받은 광주지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광주지법에서 4·3 사건 관련자 D씨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재판이 열렸고 지난해 13일 심문이 종결돼 재심개시여부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거제도 간첩사건' 관련자 재심개시 사건도 내년 2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8일 오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이경자 할머니가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배상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승소 판결

나주 유족·여수 할머니 배상 결정

나주 출신 고 최정례(1944년 12월 7일 사망) 할머니 유족이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광주·전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본 기업의 소

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최정례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80)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

당 5000만원~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승소한 원고는 유족인 이 할머니 뿐만 아니라, 여수 출신으로 심상소학교(현 여수미평초등학교)를 졸업 직후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동원된 김영옥 할머니(91)도 승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8년 7개월 만에 승소 확정 판결을 들을 수 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769억원 추징 명령도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와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대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 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이 인정한 횡령 액수는 수원여객 206억원, 스타모빌리티 400억7000만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

4000만원, 스타모빌리티 자산운용 15억원 등이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타블리씨 엔사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의 오른팔 격으로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1심 결심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후 2심 재판을 받던 중 다른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무안 공사현장서 노동자 추락사

무안의 한 건설장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8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무안군 일로에 건설장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A(60)씨가 3m 높이 구조물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광주에서 온 일용직노동자로 미장 작업을 위해 발판을 옮기던 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는 안전모가 떨어져 있었지만 인근에 CCTV와 목격자 등이 없어 경찰은 안전모 착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횡단보도 덮친 택시 운전자 과실"

택시(전기차)가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이 숨진 사고(10월 10일자 광주일보 6면)는 '운전자 과실'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광주경찰청장은 택시 운전 중 횡단보도를 덮쳐 행인 3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가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급발진보다 과속페달 오조작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통보 받은 경찰은 조만간 A씨의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보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